

실내환경디자인에 있어서 텍스타일의 디자인을 위한 기본 요소

윤 정*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석사과정)

이 해 주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패션의 개념은 단지 '의상'에 국한되었던 범위에서 탈피하여 '공간',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의미할 만큼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신세대의 출현과 더불어 자기관심과 개인중심적인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소위 구세대와의 차별화된 생활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의 공간의 창출과 생활자체에서 문화적 의미를 찾고자하는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내환경 디자인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실내환경에서 텍스타일 소재는 차가운 산업적 건축물을 커버하는 소재 자체의 부드러움과 따뜻한 특성으로 인해 침구, 카펫, 벽지, 소파, 커튼, 주방용품, 타월 그리고 펜시(fancy) 소품 등을 포괄하여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실내환경의 특징적 분위기 창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컬러와 재질감을 다루는 분야로 텍스타일 자체의 개발이나 다양한 소재의 코디네이션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텍스타일은 유연한 소재의 특성과 더불어 세탁이 가능하여 실내환경의 감성적 변화를 쉽게 유도할 수 있어 실내 디자인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내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연구는 미비하여 점차 증가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아파트 단지의 '브랜딩'에 따른 고급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준높은 실내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국내의 텍스타일 디자인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산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텍스타일 소재 및 디자인 개발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하며, 교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실내 텍스타일 디자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기획의 특성과 요소를 분석,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실내 텍스타일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내 텍스타일 디자인은 입체적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작업이 단계별 혹은 수평적으로 엮어져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야로 디자인의 목적과의 관련성, 적합성, 정확성, 적시성 등에 부합되는 다각적인 기획능력이 요구된다.

2. 현재 실내 텍스타일 디자인의 계절별 기획은 크게 S/S, F/W로 나누어지며, 판매 용도는 크게 매장용, 백화점용, 홈쇼핑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보다 더 세분화될 전망이다. 주로 다루는 소재는 면, 자카드, 폴리에스테르, 도비, 그리고 타월지, 리넨, 실크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 등이며 계층별, 소득별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3. 2003년 기획되는 주요한 트렌드는 ①antique ②retro ③junk ④kitsch ⑤scandinavian ⑥moroccan 으로 집약될 수 있다. 매 시즌별로 다채로운 트렌드를 특성으로하는 의류텍스타일 분야에 비해 실내텍스타일 디자인은 안정된 트렌드를 토대로 장기적 안목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정된 흐름 속에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트렌드 감각을 갖도록 훈련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소재를 통한 다양한 구성력, 세밀한 질감을 바탕으로한 컬러 코디네이션 감각을 익혀야 한다.
4. 실내 텍스타일 디자인 기획에서 중요한 점은 각 업체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에 따라 컬러기획, 코디네이션, 형태 디자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